

# '93 해외산업시찰을 다녀와서

— 호주편 —

글/황 광 옥(협회 기술실 차장)

새로운 세계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은 필자로 하여금 일회용이 될지 모르는 30만원짜리 샘소나이트 가방을 서슴없이 구입하도록 했다.

10월11일 아침, 19명의 시찰단원은 크고 작은 가방을 들고 협회본부로 집결하였다.

출발전 2시간동안 간담회를 통해 이번 산업시찰기간동안 주의 및 안내사항을 들은 후, 시찰단원은 무역센터내 공항터미널에서 리무진 버스를 타고 김포공항으로 향했다.

오래 외국여행에는 가족들이 배웅나와 눈물 콧물 흘리던 시절이 불과 몇년전 이견만, 시찰단원을 환송하기 위해 배웅나온 사람은 필자의 가족 뿐이었다.

우리일행을 태운 비행기는 7시40분에 정확히 김포공항 활주로를 미끄러져 나갔다. 10시간이상 비행기를 타야 하는데 여행사 직원은 기내식이 나올 때 꼬냑을 진하게 마시고 잠자는 것이 최고라고 귀띔하여 주었다. 필자는 꼬냑을 진하게 마시고는 잠을 청했으나 잠이 오지 않았다.

앞으로의 여행스케줄에 대한 생각과 불편한 좌석으로 눈만 멀뚱멀뚱 하고 있었다. 잠 설치기를 반복하다보니 다음날 새벽 4시가 되었다. 아침 기내식사가 나오면서 비행기 밖은 서서히 밝아 온다.

여명속에 저멀리 수평선이 보이고 드디어 호주 대륙이 눈앞에 다가왔다.

키위껍질색과 같은 호주 대륙은 우리나라 산처럼 가파른 곳이 없고, 솟쳐녀의 가슴처럼 높지도 낮지도 않은 언덕 같았다.

언덕과 언덕이 가늘게 이어진 은빛 강줄기 사이로 시드니의 건물들이 성냥갑 같이 필자의 눈에 다가왔다.

호주는 인생으로 볼 때 아직 소년의 티를 다 벗지 못한 청년과 같이 역사적 유물이 별로없어 관광도 시간을 두고 관찰할 만한 곳이 없다. 단지, 아름다운 풍경을 눈으로 보면서 남길만한 곳이었다.

마침내 우리의 일행을 태운 비행기가 오전 8시30분경 시드니공항에 도착하니, 30세 정도 되보이는 미모의 안내원이 우리 일행을 마중나왔다.

그녀는 호주 현지 여행사에 소속된 한국인 안내원이었다.

전용버스에 오른 우리 일행은 방문하기로 한 Pasific Power Service에 가기전 전용버스안에서 양복을 갈아 입느라 부산을 떨기도 했다.

일행을 태운 버스는 예정시간보다 늦게 Pasific Power Service에 10시40분에 도착하였다.

Pasific Pauer Service는 2층의 현건물로 연구소를 연상케 한다. 입구는 아담하면서도 깨끗이 단장되어 정원수가 담장쪽으로 늘어져 있었다. 건물안에 들어서니 이 회사 총책임자인 Ken Sim씨가 우리 일행을 반갑게 맞이하여 주었다. 회사소개 및 세미나실에 들어가기 전에 다과가 준비된 전시실로 가서 커피타임을 잠시 가졌다. 이때 Ken Sim씨와 몇마디 주고 받은 대화에서 매우 호의적이고 진지한 태도로 필자에게 대해주는 것을 느꼈다.

그동안 해외산업시찰을 추진하면서 해당국가 업체와의 교섭을 여행사에 맡겨 왔으나 금번 해외산업시찰은 미리 FAX를 통해 해당업체와 교신하였기 때문에 상대국가의 업체 뿐만 아니라 우리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원활함을 느끼게 됐다.

잠시후, 우리 일행은 Ken Sim씨의 안내로 호주의

전력현황을 설명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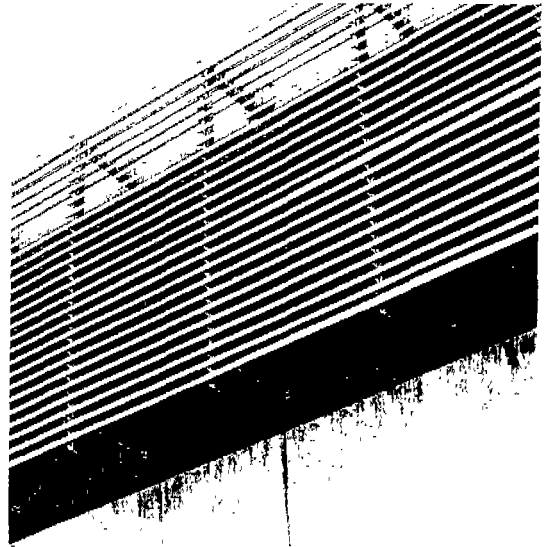
호주의 전력현황은 총발전량이 약 12,000MW이며, 전기생산자와 전기판매자가 별도로 있다 한다.

또한 송전압은 500kV, 330kV이고 배전전압은 132kV, 66kV, 33kV 이다. 발전은 수·화력에 의해 발전하고 원자력은 없다고 한다. 공해문제 때문에 원자력은 생각도 않는다고 이곳 관계자가 말했다. 정부조직은 에너지장관을 비롯하여 하부 조직으로 2만여명의 전기 및 에너지 관련 종사자가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동력자원부를 생각하면 된다.

우리 일행이 방문한 Pasific Power Service는 에너지장관 하부에 소속된 전기 사업자인 Pasific Power의 한 부서로서 소비자가 전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전기설비에 대하여 전기 사용합리화를 연구 및 지도하는 연구소이다.

우리는 이곳의 연구설비를 시찰하였는데 전기 용접기 및 장비 가공기, 기계설비 제작기기 제작에서부터 빌딩의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농사용 곡물 또는 채소를 저장·가공을 위한 보온로와 가공기 및 부화기 등에 대해서 Ken Sim씨는 열심히 설명 하였다.

그중 이곳의 에너지 절감방법을 한가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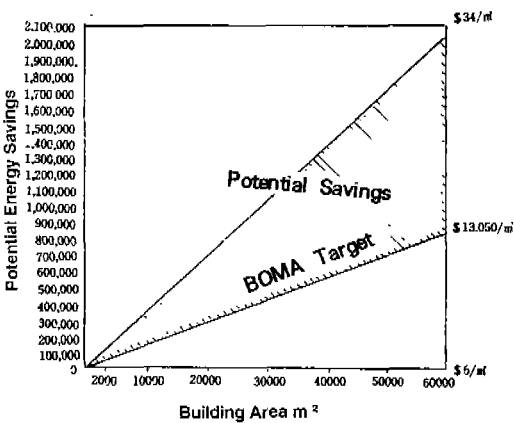
<그림 2> 벽 창밖으로 설치한 차양(40% 절약가능)

빌딩건물의 창문밖에 블라인드 커튼 같은 차양을 설치하여 햇빛의 각도에 따라 그림 1·2와 같은 차양의 각도를 조절하여 냉·온방시 비용을 40%까지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 일행은 마지막으로 호주 전기기사들의 사회적 대우에 관한 질문을 뒤로 하면서 다음 코스인 미국의 그랜드 케년과 버금가는 호주의 절경인 블루마운틴으로 발길을 옮겼다.

미국의 그랜드 케년이 남성적이라면 호주의 블루마운틴은 여성적이다. 블루마운틴은 1,000m 정도의 산들이 사열하듯이 수백km정도 늘어선 모습으로 산 사이로 깎아지른 절벽과 협곡, 기암폭포들이 기기묘묘한 형상을 연출하고 있다. 이곳에서 지난해 일본의 남학생이 자살하였다는 안내원의 설명이 있었다. 블루마운틴 밑의 나무가 우거져 있는 모습이 포근한 숨이불처럼 연상되어 그 일본학생은 순간적인 충동으로 밑으로 뛰어 내렸다고 한다. 그러나 그 학생의 시신은 찾지 못했다고 한다.

블루마운틴이란 이름은 산세가 웅장하여 파르스레한 안개가 쌓여 있어서 산의 모습이 신비로운 느낌을 주어 생긴 것이다.



<그림 1> 에너지합리화에 의해 가능한 절감량

우리는 블루마운틴 관광이 하루 일정중 마지막코스였으나 아쉬움이 많은 우리 일행은 안내원에게 다른 곳을 관광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우리 일행의 성화에 못이겨 안내원은 캠프에 있는 한국인이 경영하는 아리스 모피공장으로 안내하였다. 이 공장에서는 모피 의복을 하루에 9벌 밖에 만들지 못한다고 한다. 무슨 공장에서 그것밖에 못만드나 생각이 들어 내부를 둘러보고 모피에 대한 설명을 들으니 이해가 갔다.

이곳 아리스 모피공장에서 생산하는 스텝스킨제품은 의복 한벌에 어린양 25마리가 소요된다고 한다.

10월13일 “기데이 마트”(호주 원주민 인사말) 호주에서 이틀째 맞는 아침인사다.

5시에 기상, 아침식사를 마치고 6시30분에 호텔을 출발 호주 야생동물원을 향했다.

오전 7시에 조지 스트리트를 지나 파라마운트 로드와 센트랄역을 통과 하였다.

시드니내에 있는 하이드 파크 공원을 왼편으로 하고 윌리엄 스트리트를 통과하니 시드니 최대의 환락가인 “킹스크로스”가 차창 밖으로 보인다.

호주에서는 최근에 우리나라의 포장마차와 같은 POP이라는 선술집이 있어 가볍게 한잔하고 귀가 한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많이 변하긴 했지만, 호주사람들은 2차, 3차까지 술자리를 별로 하지 않고 대부분 사람들은 일찍 귀가하는 편이다.

또 한가지의 사실은 호주의 시드니는 동성연애 천국이라 한다. 그래서 매년 전세계적인 행사로 게이 퍼레이드가 있어 수 많은 관광객이 몰려온다고 한다. 호주인은 죄수들의 후예이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필자는 가져 보기도 했다.

킹스크로스에서 특이한 것은 전철역 등이나 공공장소에 공중화장실이 없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마약 중독자들이 이곳에서 마약주사를 맞기 때문인데 그 예방으로 공중화장실을 없앴다고 한다. 밤의 환락 도시인 킹스크로스도 밝은 아침에는 도로에 출근차량으로 차량이 길게 늘어서서 밤의 풍경과는 대조를 이룬다.



▲ 호주 야생동물원에서 (우측 : 필자)

시드니 시민 1인당 차량 보유대수는 1.73대로 차량이 엄청나게 많은 것이다.

그러나 차량이 꽉 막힌 도로에는 경적소리 하나 없었고, 끼어드는 차량도 없는 조용한 거리로 보였다.

오전 8시에 호주 야생동물원에 도착했다.

우리나라 파천 대공원의 동물원보다 규모가 작아 보였다. 이 곳에서 필자는 전세계적으로 호주에만 있는 서식하는 캥거루에게 직접 먹이를 주고 쓰다듬어 보기도 하고, 또한 코알라를 직접 껴안아 보기도 했다. 그리고 팔뚝보다 굵은 뺨을 목에 감고 기념사진도 촬영했다. 우리 일행은 1시간여동안 야생동물원을 관광하고 오전 10시20분경에 클래스 우드 목장으로 향했다.

이 곳 클래스 우드는 호주의 양모와 와인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주요한 역할을 한다고 안내원이 설명을 해주었다.

이 목장에서는 양털을 목자가 직접 이발기구 같이 생긴 전기 면도기로 깎는다.

이때 잘못 깎여 면도기가 양의 살을 다치게 할 때는 피망울이 솟는다.

그러나 양들은 겁먹은 눈만 부라리며 암전히 누워있는 모습은 성서에 나오는 양의 모습을 그려보기도 한다.

점심을 통나무집에서 양고기와 쇠고기 티본스테이

크를 먹었다.

식사후 포도주 시음장에서 7종류의 포도주를 마셨다.  
공짜는 즐거운 것이었다.

전용버스안에서 미모의 안내원이 낸 퀴즈가 생각이 난다.

“한국인이 지나간 곳에 흔적을 남기는 것이 무엇 일까요?”

이 해답은 다음 “뉴질랜드”편에서 소개하기로 하겠다.

호주는 철저한 5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어 근무 시간 이외에 일하는 법이 없다. 업무 종료시간은 시계바늘이 5시 땡이면, 손도 몸도 땡이다. 행여 퇴근 시간 지나 일하게 되면, 그시간 만큼 늦게 출근한다.

이곳에 이민 온 한국인은 처음에는 눈빛이 빛나지만 한두해 지나면 동태눈이 된다고 한다. 그것은 한

국에서 처럼 악착스럽게 살 필요가 없기 때문이었다. 상점도 오후 5시면 문을 닫는다. 자연의 혜택을 받은 호주인이 부럽게 느껴지지만 필자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다.

인생은 목적과 목표가 있어야 한다. 인생의 과정은 목표를 향하여 추구하는 과정인 것이다. 잘살기 위한 목표, 성공하기 위한 목표와 이상, 이것이 우리의 삶의 행복이 아닐까? 시찰단원 모두 이러한 삶의 행복을 공유하고 어느정도 이룩한 분들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세계속의 한국을 돌이켜 보고 후손에게 물려줄 여유를 가져본다.

끝으로 호주여행은 필자의 삶에 많은 변화와 발전에 도움을 줄 것을 확신하면서 “뉴질랜드”를 생각한다.

<다음호에 계속……>

## 이럴 땐 이렇게 하세요

### dot자리의 얼룩은 우유로 없앤다

dot자리에 잉크를 엮질렀을 때는 걸레로 문지르면 얼룩이 번서 더 커진다. 이럴 때는 휴지나 천으로 잉크를 어느 정도 빨아낸 다음 젖은 걸레로 닦아야 한다. 잉크가 묻은 자리에 우유를 조금 붓고 마른 걸레로 닦으면 깨끗해진다.

### 방충망 청소는 스폰지로

방충망은 바람이 잘 통하지만 먼지가 많이 낀다. 먼지를 청소할 때는 스폰지 2개를 마련하여 양쪽에서 고르게 문지르면 걸레로 닦는 것보다 훨씬 깨끗해진다. 그러나 먼지가 많이 나므로 청소할 때 마스크를 쓰는 것이 좋다.

### 감자, 무, 바나나 등은 냉장고에 보관하지 않는다

냉장고에 보관해서 좋은 식품이 있고 냉장고에 보

관하면 더 나빠지는 식품이 있다. 감자 따위는 냉장고에 보관하면 맛이 떨어지게 되고 무는 투명하게 변하며 바나나는 검게 변색된다.

또한 통조림은 그 자체가 장기보존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마요네즈는 섭씨 9℃ 이하에서 분리되기 쉽고 그렇게 되면 세균이 번식하기 쉬우므로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은 좋지 않다.

### 전화기는 알콜로 소독한다

전화기는 많은 사람이 사용하므로 보이지 않는 손때와 세균이 묻어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자주 알콜로 닦아 소독해주는 것이 좋다.

그리고 소독할 때 식초 두세방울을 떨어뜨린 물로 전화기를 닦아주면 정전기가 생기지 않아 먼지가 덜 탄다. 전화기 뿐만 아니라 그 밖의 플라스틱 제품의 정전기도 이 방법으로 방지할 수 있다.